



대학주보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날 박사 195명, 석사 1,247명, 학사 2,06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사진 촬영을 위한 양 캠퍼스 졸업 주간은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서울캠 총여 해산 안전 부결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총여학생회(총여) 해산 결정 총투표 유권자를 '서울캠퍼스(서울캠) 모든 재학생 중 여학생'으로 하는 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총여 해산 방식은 다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에서 수정된 안건으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제4차 확운위에서 총여 해산 총투표의 유권자를 '서울캠 모든 재학생인 여학생'으로 정해 안건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총투표 인원 113명 중 찬성 62표, 반대 14표, 기권 37표를 받아 확정된 결과다.

확운위에서 총여 해산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상정한 총여 총투표 규정은 총여학생회칙의 부재로 총학생회칙의 총투표 조항을 준용했다. 규정에서는 유권자를 총여의 정회원인 서울캠 모든 재학생 중 여학생으로 한정했다. 또 총여 대표자의 부재로 투표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로 뒀다. 그러나 해당 의결은 투표 인원 2/3인 76표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확운위에서 안건이 가결됐을 경우 24시간 이내로 총투표 시행 공고를 게시해야 하지만 안건이 부결되며 무산됐다.

▶2면 '총여'로 계속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선별 지급 확정

이현정 기자 pr3417@khu.ac.kr
장혜림 기자 vicky21524@khu.ac.kr

양 캠퍼스의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확정됐다. 장학금 수혜자는 실험·실습·실기 과목 이수 학생과 코로나19로 인한 가계곤란자로 한정된다.

대학본부는 이번 특별장학금을 위해 캠퍼스당 3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본부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극복 경희 후배 사랑 캠페인' 모금액과 장학기금의 일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캠 학생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 혹은 실험실습 수업 참여로 지출된 금액에 대한 학업 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별장학금은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의 지원장학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장학금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서울캠은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

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2.0 이상일 것을 신청자격으로 한다. 국제캠은 직전학기 이수 학점과 평균평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캠 지원장학금의 경우 실기 수업 이수자 240명, 실험·실습 수업 이수자 56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해당 장학금은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등록금 이외 추가 비용을 지출한 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선발규모를 초과해 지원하거나 동점자가 발생하면 등록금 외 추가지출 총액 및 이수 학점 등이 반영될 수 있다.

서울캠 남우석(철학 2018) 총학생회장은 "실험·실습·실기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등록금에 실기·실험실 이용과 학업에 필요한 도구를 지원해주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못해 외부 연습실을 사비로 대여하는 등의 추가지출이 이뤄진 경우

를 우선순위로 뒀다"며 실험·실습·실기 수강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생활장학금은 200명의 학생들을 선발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부모의 실업 및 근로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생활비 지원 장학 성격으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수혜 받을 수 있다.

국제캠은 지원장학금 대상인 실험·실습·실기 수업 수강 학생의 경우 1인당 25만원이 아닌 수업 당 10만원씩 지급해 최대 4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차이를 뒀다. 또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을 5-10분위로 한정했다. 국제캠 총학은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 가지 혜택으로 1-4분위 학생들은 거의 전액에 가까운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캠퍼스 특별장학은 신청 마감일 및 지급 시기는 비슷하지만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세내용, 공고일시 등에 일부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을 따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국제캠 총학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제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생각과 서울캠 중운위의 의견이 달라 따로 진행하게 됐다"며 "국제캠의 경우 공과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체육대학 등의 단과대가 있어 실험·실습·실기를 강의가 많은 특징을 고려해 세부 기준에서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장학금의 수혜대상자는 서울캠 1,000명 국제캠 최소 1,000명이다. 지난 2020학년도 특별장학금 수혜 인원에서 대략 1/9 수준으로 감소한 수이다. 지난 특별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업 장려를 위해 서울캠 1만 520여 명, 국제캠 8,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지급 액수는 등록금 실 납부액의 5%였다.

▶3면 '특별장학금'으로 계속

사령

면 <편집장>
김가연(국어국문학 2019)
<국제뉴스팀장>
이태영(행정학 2019)
<기획팀장>
허지영(한의학 2019)

명 <편집장>
이태영(행정학 2019)
<국제뉴스팀장>
김경민(국제학 2017)
<기획팀장>
한진석(한의학 2018)